

##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김 정 희 · 꺾 경 숙<sup>†</sup>

학산 정보고등학교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A Study on the Housing Values and Life 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Jeong-Hee Kim · Kyoung-Sook Kwark<sup>†</sup>

Haksan Information-industry High School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tendency of differences in housing values and life 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onbuk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1015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Chonbuk province, and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using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Data were verified by t-test, One-way Anova, Schéffe'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s we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using values and life style by demographic variables than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correlation between housing values and life style differed significantly. Most of students showed higher value in location of housing, while as life style showed higher value in type of life style along with PC.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can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about housing values and life 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for correct guidance of housing education.

**Key Words** : housing values, life style

\* 본 연구는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었음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344-2 Shinyong-dong, Iksan, Chunbuk, 570-749, Korea

Tel : 063-850-6587, Fax : 063-850-6585, H/P : 017-656-0598

E-mail : kskwak@wonkwang.ac.kr

## 1. 서론

주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일차적 환경이며 인간 삶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다. Carol(1980)은 주거는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적 가치, 태도, 열망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생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주생활은 주택이라는 공간적 구조물과 가족단위가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주생활은 주택과 주거환경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관과 문화, 자원 및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거주자의 의식구조, 가치관, 문화 규범 및 행동 등은 주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생활에 대한 연구는 한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보다는 각 요소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의식과 요구, 가치관 등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한다. Gallorly(1974)는 주거선택 과정을 하나의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간주하여 가족의 사회·배경적 요인이 예상지표로서 작용하고 여기에 개인의 동기와 가치관, 준거집단세력 및 문화인류학적 배경 등이 작용하여 이것의 산출물로서 주거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가치는 모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주거를 선택할 때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Smith, 1963),

한편, 주생활에 대한 요소 중 생활양식은 생활의 구조적 측면인 생활의식, 생활행동, 태도 등의 복합체로서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갖는 생활의 표현양식이다(이은희, 1986). 생활양식은 집단 구성원들이 동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므로 주생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개념, 주체의식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므로 이에 맞는 조화로운 주거공간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로서의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며, 따라서 주거는 생활의 틀로서 생활양식에 따라 더

욱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제까지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각각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따로 분리하여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연구대상도 주부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될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라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또한 이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주생활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교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주생활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따로 연구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속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주거가치관

주거가치는 주거조건을 평가하고, 주거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알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거가치는 주거의 선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 특수가치이며,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상대적 가치이다(고경필·윤재웅, 1994). 이러한 주거가치는 가족의 주거행동에서 자원의 선택이나 행동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주거에 대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 주거에 대한 가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주거에 대한 총괄적인 것에서부터 단편적이고도 부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의식의 대상은 주거의 공간을 구성시키는 평면 계획적인 측면뿐 만이 아니라 주택의 외관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가치는 주거상황에 대해서 갖는 바람직한 주거 의사결정이나 주거에 관한 행동의 판단기준이며, 주거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관념으로 정의하였다(주영애, 1986; 주영순, 1996). 따라서 주거가치는 개인이나 가족이 지니고 있는 일반 가치 즉, 학력, 직업, 성별, 경제적 차이, 생활수준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떠한 유형을 지니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 발전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의식과 생활습관의 문제는 앞으로의 주거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집'에 대한 개념에 관한 김희정(1990)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집을 위락, 휴양, 단란, 생활의 장소로 보고 있었다. 장래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요구에서는 넓은 정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 주택의 기능적 특성 중 집은 위락의 장소이길 희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개인적 공간을 강조한 연구들과는 달리, 다른 것들에 비해 독립성 보장의 문제는 오히려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윤정애(1993)는 대구시 청년기 학생들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대학생들의 주거관은 구체적인 연령, 학력에 따라 주거관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주거관은 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주거가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Cutler(1947)는 미, 안락성, 편리성, 입지, 건강 및 안전성, 사생활, 경제성, 개인 및 가족, 사회성, 위신으로 나누었고, 이에 대해 Beyer(1955)는 주거 선택 상황에만 한정하여 주거가치를 미, 자신건강, 경제성, 가족중심주의, 평등주의, 신체적 건강, 여가, 위신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을 종합한 Meeks(1976)는 주거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적 가치, 위신 가치, 개인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홍성희(1983)는 주거가치관을 주택의 내부구조와 시설, 입지, 교육 건강 및 안전성, 사회성, 사생활 보장, 지위상징성, 심미성, 경제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최목화

(1987)는 생리적 건강성, 안전성, 주변환경성, 심미성, 사회성 및 사고, 자아실현성, 신분 상징성을 들었다.

박윤성(1991)은 과시형, 보수형, 원시형, 가족단란형, 진취형으로 나누었으며, 고경필, 윤재웅(1994)은 주거가치를 입지조건, 안전성, 심미성, 경제성, 위신, 인간관계, 근접성, 주변환경의 편리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은정(1994)은 외부환경 중시, 안전과 프라이버시, 내부기능과 심미성, 위신과 경제성으로 주거가치 특성을 들었으며, 신혜정(1997)은 주거가치를 입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택적 측면, 생활의식적, 투자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렇듯 청소년기 고등학생 시기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주거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봐왔듯이 주거관이나 주거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개인특성에 따라 일률적일 수는 없으나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가치관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혜정(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 2.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1950년대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어 왔다. 생활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은 Max Weber(1968)의 저서에 있는 'Lebenfubrug', 또는 'Lebensanshaug'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Lebensanshaug'은 단순한 기호나 태도를 의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원리를 의미한다(Duncan, 1969). Weber 이후 생활양식의 개념은 특정집단과 계층이 공유하는 집합적인 의미로, Alder, Allport와 Coleman 등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였다(김숙향·양남희, 1993; 이차옥, 1983).

생활양식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계층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는 포함되어 있다(김동기, 1993; 이은경·박은순, 1998). 즉, 생활양식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나타나며, 생(生)의 신조 또는 가

치관을 포함한 하나의 집단현상으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패턴화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오디오, 비디오를 선호하고, 즉흥적인 의사결정으로 유행을 추종하면서도 개성을 중시하며, TV광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청소년 생활양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정근원(1993)은 문자세대인 기성세대에 비해 영상세대인 이 시기는 감성 중심적, 좋고 싫음이 분명, 감각적 판단, 당장의 선호가 기준, 집단과 일치 지향, 자기표현 중시, 스스로 가치창조, 자기충실, 해방된 감정, 문화 생산소비에 참여, 사용가치의 중시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경·박은순(1998)은 신세대 생활양식을 자기중심적 감성문화, 발달된 영상매체와 통신문화, 국제적 개방문화로 분류하였다. 김은경(1995)은 신세대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개성화(Personal), 즐거움(Amusement), 자연에 대한 욕구(Natural), 나이나 성의 구분 거부(Trends Border), 하이테크(high-tech)·하이터치(high-touch)의 서비스(Service) 등의 P·A·N·T·S로 요약하고 있다.

조명은·윤복자(2000)는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과시·유행 추구형, 가족 중심형, 자기개발 중심형, 편의추구형, PC와 함께 형, 실리형, 운동·취미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최목화(1991)는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주거생활 조건에 따라 주생활양식을 재래식 기본생활 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현대식 기본생활 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에 대한 윤복자·김혜정(1991)의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주생활과 관련된 태도, 의견 관심 및 난방방식, 가구 및 생활기기의 소유 여부와 사용 빈도로 분류하였다. 박영순 등(1994)은 주생활양식을 정리정돈형,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현경(1994)은 주생활양식을 진보적 개인주의, 개성적 활동형, 생활충실 표현형, 사회적 중시형, 소극

적 합리형, 보수적 안정형, 전통적 관습형 등으로 구분하여 주생활양식에 따른 실내 환경 선호특성을 조사하였다. 심미영·고경필(1996)은 주생활양식을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내부기능성형, 실용성형, 과시성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주생활양식을 분석하였고, 또한 주생활양식이 주택 구매 의사결정 시 평가기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허영숙·조성희(1997)는 주생활양식을 편리추구형, 개성중시형, 보수관행형, 전통격식형, 개인생활중시형, 현대합리형, 전통가족단란형, 현대가족단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김미희·문희정(1998)의 연구와 김미희·이유미(1998)의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현대적 도시생활형, 자연·이웃환경중시형, 과시적 감성추구형, 소극적 개인생활형 및 전통적 관습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양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다양한 영상매체 또는 컴퓨터 등과 더불어 살면서도 개성을 중시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중 조명은과 윤복자(2000)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지역에서 각각 남·녀 고등학교 1개교씩의 2학년 3~4학급을 무작위로 표집한 학생, 총 1200명이며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였다. 배부한 설문지 1200부 중, 1105부를 회수(92.1%)하였으며, 이 중 기입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015(84.6%)를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의 조사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015)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여자	498	49.1
	남자	517	50.9
부학력	중졸이하	163	16.0
	고졸	487	48.0
	대졸이상	365	27.9
모학력	중졸이하	257	25.3
	고졸	553	54.5
	대졸이상	124	12.2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132	13.0
	사무직	239	23.5
	생산직	97	9.6
	판매직 및 서비스직	259	25.5
	농업	165	16.3
	무직	14	1.4
모의 취업여부	취업주부	425	41.9
	전업주부	465	45.8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	120	11.8
	100만원 ~ 200만원미만	430	42.4
	200만원미만	390	38.4
	200만원이상	390	38.4
가족수	3명이하	358	35.3
	4명	397	39.1
	5명이상	260	25.6
가족형태	핵가족	827	81.5
	확대가족	161	15.9
계		1015	100.0

\*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시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주거가치관, 생활양식, 인구 통계적 변인, 주거특성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주거가치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혜정(1997)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입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택적 측면, 생활의식적 측면, 투자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총 27문항을 조사하였다. 생활양식은 조명은·윤복자(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중심형, 편의추구형, PC와 함께 형, 실리형, 운동·취미중심형으로 분류하여 총 29문항을 조사하였다. 인구 통계학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n=1015)

구분		빈도(N)	백분율(%)
거주지역	농촌	204	20.1
	도시	650	63.8
거주기간	6년이하	413	40.7
	7년 ~ 12년	279	27.5
	13년이상	323	31.8
주택유형	독립주택	412	40.6
	집합주택	603	59.4
소유형태	자가주택	806	79.4
	임대주택	209	20.6
방의 기거 상황	혼자 쓴다	727	71.6
	둘 이상	288	28.4
	함께 쓴다		
방의 수	3개이하	755	74.4
	4개이상	260	25.6
화장실 수	1개	566	55.8
	2개이상	449	44.2
계		1015	100.0

\*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시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적 특성은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월수입, 가족 수, 가족형태에 관한 사항을 총 8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주거특성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주택유형, 소유형태, 방의 기거상황, 방의수, 화장실 수에 관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가치관, 생활양식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아주 그렇다'를 5점으로 '아주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논문의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과 Schéffe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 N. 결과 및 해석

### 1.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

구 분			주거가치관					M(SD)
인구통계학적 특성		N	입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택적 측면	생활의식적측면	투자적 측면	
성별	여자	498	3.94(.47)	2.90(.67)	3.66(.52)	3.44(.46)	3.14(.46)	
	남자	517	3.84(.50)	2.69(.70)	3.48(.56)	3.41(.50)	3.19(.48)	
	합계	1015	3.89(.49)	2.80(.69)	3.58(.54)	3.43(.48)	3.17(.47)	
	t		3.30***	4.943***	5.18***	.88	1.64	
부학력	중졸이하	163	3.92(.48)	2.76(.59)	3.65(.55)	3.51(.46)	3.24(.49)	
	고졸	487	3.89(.48)	2.76(.72)	3.57(.55)	3.43(.49)	3.17(.49)	
	대졸이상	365	3.88(.50)	2.86(.69)	3.53(.54)	3.39(.47)	3.13(.45)	
	합계	1015	3.89(.49)	2.80(.69)	3.57(.55)	3.43(.48)	3.17(.48)	
	F		.32	2.11	2.90	3.50*	2.94	
모학력	중졸이하	257	3.92(.46)	2.71(.61) <sup>D</sup>	3.59(.52)	3.50(.44)	3.24(.48) <sup>a</sup>	
	고졸	553	3.89(.49)	2.82(.72) <sup>ab</sup>	3.57(.57)	3.40(.49)	3.15(.49) <sup>ab</sup>	
	대졸이상	124	3.88(.52)	2.88(.74) <sup>a</sup>	3.52(.51)	3.42(.48)	3.10(.44) <sup>D</sup>	
	합계	934	3.40(.49)	2.80(.70)	3.57(.55)	3.43(.48)	3.17(.48)	
	F		.40	3.35*	.69	3.98	4.30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132	3.90(.53)	2.86(.73) <sup>a</sup>	3.50(.57)	3.30(.46) <sup>D</sup>	3.02(.42) <sup>c</sup>	
	사무직	239	3.87(.46)	2.81(.68) <sup>ab</sup>	3.52(.51)	3.40(.47) <sup>ab</sup>	3.08(.48) <sup>bc</sup>	
	생산직	97	3.89(.47)	2.60(.61) <sup>D</sup>	3.55(.50)	3.45(.42) <sup>ab</sup>	3.26(.44) <sup>a</sup>	
	판매 및 서비스직	259	3.90(.50)	2.85(.76) <sup>a</sup>	3.60(.59)	3.46(.53) <sup>ab</sup>	3.23(.50) <sup>ab</sup>	
	농업	165	3.89(.49)	2.69(.66) <sup>ab</sup>	3.64(.53)	3.51(.43) <sup>a</sup>	3.28(.45) <sup>a</sup>	
	합계	892	3.89(.49)	2.79(.70)	3.66(.55)	3.43(.48)	3.17(.48)	
	F		.13	3.47**	2.09	4.17**	9.8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주부	425	3.91(.49)	2.77(.71)	3.61(.55)	3.42(.47)	3.20(.48)	
	전업주부	465	3.88(.47)	2.81(.69)	3.55(.54)	3.45(.49)	3.14(.47)	
	합계	890	3.90(.48)	2.80(.70)	3.58(.55)	3.44(.48)	3.17(.48)	
	t		.89	.80	1.75	1.06	1.77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120	3.92(.51)	2.71(.71) <sup>D</sup>	3.63(.55)	3.46(.54)	3.20(.53)	
	100만원~200만원미만	430	3.88(.49)	2.73(.63) <sup>ab</sup>	3.55(.53)	3.43(.47)	3.16(.45)	
	200만원이상	390	3.90(.49)	2.88(.74) <sup>a</sup>	3.58(.56)	3.42(.48)	3.17(.50)	
	합계	940	3.89(.49)	2.79(.69)	3.57(.55)	3.43(.48)	3.17(.48)	
	F		.38	5.58**	1.04	.40	.40	

<표 3> 이어서

가족수	3명이하	358	3.89(.54)	2.84(.69)	3.51(.59)	3.41(.53)	3.20(.52)
	4명	397	3.90(.46)	2.79(.73)	3.56(.52)	3.42(.46)	3.14(.48)
	5명이상	260	3.88(.45)	2.74(.64)	3.66(.52)	3.46(.43)	3.17(.42)
	합계	1015	3.89(.49)	2.80(.69)	3.57(.55)	3.43(.48)	3.17(.48)
F			.06	1.46	6.04**	1.26	1.51
가족 형태	핵가족	827	3.88(.50)	2.80(.71)	3.55(.56)	3.41(.49)	3.16(.48)
	확대가족	161	3.95(.44)	2.79(.61)	3.64(.47)	3.49(.43)	3.21(.45)
	합계	988	3.92(.47)	2.80(.66)	3.60(.52)	3.45(.46)	3.19(.47)
	t		1.69	.18	1.77	1.76	1.42

\*p<.05 \*\*p<.01 \*\*\*p<.001

※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제외시켰음

※ 문자 a, b, c는 Schéffe의 다중범위검증(p<.05)

성별에 따라서는 주거가치관의 입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택적 측면은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생활의식적 측면과 투자적 측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투자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주거가치관을 연구한 윤재웅과 신혜정(1997)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대부분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가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주거가치관의 생활의식적 측면만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심리적 측면에만 차이가 있었다(p<.05).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고등학생이 다른 학력 층에 비하여 주거가치관의 생활의식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의 고등학생이 주거가치관의 투자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주거가치관의 투자적 측면에 p<.001 수준에서, 주거의 심리적 측면과 생활의식적 측면에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일 때 주거가치관의 심리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위신과 체면, 이미지 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인 학생들이 주거가치관의 생활의식적 측

면과 투자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거가치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주거가치관의 심리적 측면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1),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였다. 윤재웅과 신혜정(1997)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대학생 집단이 주거가치관의 사회·심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가족수에 따라서는 주거가치관의 주택적 측면에만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주거가치관의 주택적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거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거가치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형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

주거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투자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여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거에 대한 농촌지역 고

<표 4>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

구분		주거가치관					
주거특성	N	입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택적 측면	생활의식적 측면	투자적 측면	
거주지역	농촌	204	3.83(.53)	2.71(.56)	3.57(.52)	3.46(.44)	3.22(.45)
	도시	650	3.89(.47)	2.81(.72)	3.56(.55)	3.41(.47)	3.13(.47)
	합계	854	3.86(.50)	2.76(.64)	3.57(.54)	3.44(.46)	3.18(.46)
	t		1.68	1.67	.22	1.46	2.45*
거주기간	6년이하	431	3.86(.50)	2.78(.70)	3.56(.58)	3.41(.52)ab	3.16(.49)
	7년~12년	279	3.92(.47)	2.83(.72)	3.53(.54)	3.38(.44)b	3.13(.47)
	13년이상	323	3.90(.49)	2.79(.66)	3.61(.51)	3.48(.45)a	3.22(.47)
	합계	1015	3.89(.49)	2.80(.69)	3.57(.55)	3.43(.48)	3.17(.48)
F		1.24	.55	1.76	3.18*	2.74	
주택유형	독립주택	412	3.87(.48)	2.77(.65)	3.61(.52)	3.46(.43)	3.22(.43)
	집합주택	603	3.90(.49)	2.82(.72)	3.54(.57)	3.40(.51)	3.14(.51)
	합계	1015	3.89(.49)	2.80(.69)	3.58(.55)	3.43(.47)	3.18(.47)
	t		.98	1.06	2.18*	1.68	2.58**
소유형태	자가주택	806	3.91(.48)	2.82(.70)	3.58(.54)	3.43(.47)	3.17(.47)
	임대주택	209	3.83(.50)	2.70(.67)	3.53(.58)	3.42(.51)	3.16(.51)
	합계	1015	3.87(.49)	2.76(.69)	3.56(.56)	4.93(.49)	3.17(.49)
	t		2.10*	2.30*	1.11	.29	.15
방의 기거상황	혼자쓴다	727	3.89(.49)	2.82(.71)	3.54(.56)	3.41(.49)	3.17(.48)
	둘 이상 함께 쓴다	288	3.89(.48)	2.74(.66)	3.62(.51)	3.46(.45)	3.18(.47)
	합계	1015	3.89(.49)	2.78(.69)	3.58(.54)	3.44(.47)	3.18(.48)
	t		.00	1.49	2.10*	1.47	.37
방의수	3개이하	755	3.88(.48)	2.79(.69)	3.54(.55)	3.41(.49)	3.15(.49)
	4개이상	260	3.92(.52)	2.81(.70)	3.64(.54)	3.46(.45)	3.21(.45)
	합계	1015	3.90(.50)	2.80(.70)	3.59(.55)	3.44(.47)	3.18(.47)
	t		.99	.36	2.35*	1.49	1.68
화장실수	1개	566	3.87(.47)	2.77(.65)	3.55(.52)	3.43(.48)	3.19(.48)
	2개이상	449	3.92(.51)	2.83(.74)	3.59(.58)	3.42(.48)	3.15(.48)
	합계	1015	3.90(.49)	2.80(.70)	3.57(.55)	3.43(.48)	3.17(.48)
	t		1.47	1.30	.99	.15	1.36

\*p<.05 \*\*p<.01

\* 문자 a, b, c는 Schéffe의 다중범위검증(p<.05)

등학생들의 실리 추구적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주거의 생활의식적 측면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기간이 13년 이상인 학생들이 생활의식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에 대한 생활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 공간 계승에



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 보다 독립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택적 측면 ( $p<.05$ )과 투자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p<.01$ ).

주거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입지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 보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였다.

방의 기거상황에 따라서는 혼자 방을 쓰는 학생들 보다 방을 둘 이상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거의 주택적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방의 수에 따라서는 주거의 주택적 측면에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방을 4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을 3개 이하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화장실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가치관은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은 주거특성보다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고등학생의 생활양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은 과시·유행추구, 가족중심, 자기개발 중심, 운동·취미중심형 생활양식에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운동·취미 중심 생활양식을 제외한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 자기개발 중심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양식에서 전형적인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과시·유행추구형을  $p<.001$  수준에서, 자기개발 중심형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과시·유행추구형과 자기개발 중심형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과시·

유행추구형과 운동·취미 중심형에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중심형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과시·유행추구형, 운동·취미 중심형, 자기개발 중심형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성 있는 생활을 원하며, 평상시에도 자기과시나 유행추구, 자기개발을 위한 지식습득을 위한 생활양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과시·유행추구형과 실리형에  $p<.001$  수준에서, 자기개발 중심형과 운동·취미 중심형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인 경우 과시·유행추구형과 자기개발 중심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 및 서비스직인 경우는 실리형이,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인 학생들은 운동·취미 중심형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아버지의 직업이 고등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생활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가족중심형과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형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편의추구형을 제외한 모든 생활양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월수입이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가족 수와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의 차이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족 수, 가족형태 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2) 주거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주거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자기개발중심형 생활양식에  $p<.01$  수준에서, 실리형 생활양식은  $p<.05$  수준에서 도시지역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자기개발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과시나 유행의 요인에도 민감한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구분		생활양식 M(SD)							
인구통계학적 특성	N	과시·유행추구	가족중심	자기개발중심	편의추구	PC와 함께	실리	운동·취미중심	
성별	여자	489	3.33(.60)	3.89(.58)	3.81(.50)	3.52(.57)	3.76(.76)	3.15(.53)	3.02(.68)
	남자	517	2.91(.63)	3.64(.62)	3.56(.53)	3.51(.58)	3.87(.79)	3.13(.55)	3.32(.85)
	합계	1006	3.12(.62)	3.77(.60)	3.69(.52)	3.52(.58)	3.82(.78)	3.14(.54)	3.17(.77)
	t		11.01***	6.63***	7.91***	.13	2.38	.60	6.18***
부학력	중졸이하	163	2.96(.67) <sup>b</sup>	3.74(.61)	3.61(.55) <sup>b</sup>	3.52(.52)	3.78(.78)	3.10(.57)	3.07(.83)
	고졸	487	3.11(.65) <sup>a</sup>	3.75(.61)	3.67(.53) <sup>ab</sup>	3.55(.58)	3.81(.77)	3.12(.54)	3.18(.79)
	대졸이상	365	3.19(.63) <sup>a</sup>	3.78(.62)	3.73(.51) <sup>a</sup>	3.47(.58)	3.84(.78)	3.20(.53)	3.22(.76)
	합계	1015	3.11(.65)	3.76(.61)	3.68(.53)	3.52(.57)	3.82(.78)	3.14(.54)	3.17(.79)
F		6.97***	.27	3.23*	2.09	.36	3.03	2.01	
모학력	중졸이하	257	2.98(.63) <sup>b</sup>	3.70(.61)	3.59(.55) <sup>b</sup>	3.54(.54)	3.73(.79)	3.08(.54)	3.02(.81) <sup>b</sup>
	고졸	553	3.19(.66) <sup>a</sup>	3.80(.61)	3.72(.51) <sup>a</sup>	3.53(.57)	3.87(.76)	3.15(.54)	3.24(.78) <sup>a</sup>
	대졸이상	124	3.16(.62) <sup>a</sup>	3.77(.63)	3.74(.49) <sup>a</sup>	3.45(.59)	3.77(.71)	3.20(.52)	3.28(.77) <sup>a</sup>
	합계	934	3.13(.65)	3.77(.61)	3.69(.53)	3.52(.57)	3.82(.77)	3.14(.54)	3.18(.79)
F		9.56***	2.23	6.19**	1.22	3.62	2.59	7.58***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132	3.25(.62) <sup>a</sup>	3.76(.64)	3.77(.53) <sup>a</sup>	3.48(.57)	3.84(.70)	3.21(.44) <sup>ab</sup>	3.22(.86) <sup>ab</sup>
	사무직	239	3.19(.65) <sup>ab</sup>	3.79(.59)	3.71(.53) <sup>ab</sup>	3.45(.58)	3.82(.75)	3.12(.55) <sup>ab</sup>	3.22(.74) <sup>ab</sup>
	생산직	97	2.98(.62) <sup>bc</sup>	3.71(.59)	3.62(.51) <sup>ab</sup>	3.49(.49)	3.81(.72)	3.05(.49) <sup>ab</sup>	3.26(.90) <sup>a</sup>
	판매 및 서비스직	259	3.13(.67) <sup>abc</sup>	3.77(.62)	3.70(.48) <sup>ab</sup>	3.57(.57)	3.83(.78)	3.23(.57) <sup>a</sup>	3.24(.76) <sup>ab</sup>
	농업	165	2.94(.60) <sup>c</sup>	3.71(.60)	3.55(.56) <sup>a</sup>	3.54(.58)	3.78(.83)	3.05(.50) <sup>b</sup>	2.98(.76) <sup>b</sup>
	합계	892	3.11(.64)	3.76(.60)	3.68(.52)	3.51(.57)	3.82(.76)	3.14(.53)	3.19(.79)
F		6.33***	.65	4.32**	1.62	.13	4.71***	3.61**	
모의 취업 여부	취업주부	425	3.13(.63)	3.74(.60)	3.68(.54)	3.51(.56)	3.85(.80)	3.15(.53)	3.19(.77)
	전업주부	465	3.12(.66)	3.79(.60)	3.67(.52)	3.51(.56)	3.81(.74)	3.13(.54)	3.19(.81)
	합계	890	3.13(.65)	3.77(.60)	3.68(.53)	3.51(.56)	3.83(.77)	3.14(.54)	3.19(.79)
	t		.23	1.37	.26	.14	.73	.66	.15
월수입	100만원미만	120	2.92(.61) <sup>b</sup>	3.69(.67)	3.60(.56) <sup>b</sup>	3.60(.56) <sup>a</sup>	3.68(.84)	3.01(.53) <sup>b</sup>	3.03(.75) <sup>b</sup>
	100만원~200만원미만	430	3.07(.63) <sup>a</sup>	3.73(.60)	3.65(.52) <sup>ab</sup>	3.54(.55) <sup>ab</sup>	3.82(.75)	3.14(.58) <sup>ab</sup>	3.14(.79) <sup>ab</sup>
	200만원이상	390	3.21(.66) <sup>a</sup>	3.81(.61)	3.75(.54) <sup>a</sup>	3.46(.60) <sup>b</sup>	3.86(.77)	3.20(.51) <sup>a</sup>	3.26(.80) <sup>a</sup>
	합계	940	3.11(.65)	3.76(.61)	3.68(.53)	3.52(.58)	3.82(.77)	3.15(.55)	3.18(.79)
F		10.57***	2.28	5.13**	3.36*	2.45	5.32**	4.63**	
가족수	3명이하	358	3.15(.66)	3.74(.65)	3.66(.55)	3.48(.59)	3.82(.77)	3.14(.55)	3.13(.81)
	4명	397	3.07(.66)	3.74(.60)	3.71(.52)	3.53(.54)	3.83(.75)	3.16(.56)	3.25(.76)
	5명이상	260	3.13(.60)	3.82(.57)	3.67(.52)	3.54(.58)	3.79(.82)	3.12(.50)	3.12(.80)
	합계	1015	3.11(.65)	3.76(.61)	3.68(.53)	3.52(.57)	3.82(.78)	3.14(.54)	3.17(.79)
F		1.57	1.83	.83	.97	.20	.35	2.74	
가족 형태	핵가족	827	3.12(.66)	3.76(.61)	3.69(.52)	3.51(.57)	3.84(.77)	3.15(.55)	3.16(.79)
	확대가족	161	3.07(.59)	3.77(.64)	3.64(.58)	3.50(.58)	3.77(.77)	3.13(.50)	3.23(.74)
	합계	988	3.10(.63)	3.77(.63)	3.67(.55)	3.51(.58)	3.81(.77)	3.14(.53)	3.20(.77)
	t		.86	.13	.92	.28	1.04	.49	1.08

<표 6> 주거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구 분		생활양식							
주거특성	N	과시·유행추구	가족중심	자기개발중심	편의 추구	PC와 함께	실리	운동·취미중심	
거주지역	농촌	204	3.09(.60)	3.77(.60)	3.60(.54)	3.54(.54)	3.75(.81)	3.07(.51)	3.13(.76)
	도시	650	3.13(.65)	3.77(.61)	3.72(.51)	3.50(.59)	3.85(.75)	3.17(.54)	3.22(.78)
	합계	854	3.11(.63)	3.77(.61)	3.66(.53)	3.52(.57)	3.80(.78)	3.12(.53)	3.18(.77)
	t		.92	.16	2.94**	.88	1.67	2.20*	1.41
거주기간	6년이하	413	3.16(.66)	3.77(.62)	3.72(.53)	3.56(.58)	3.87(.75)	3.19(.58)	3.19(.82)
	7년~12년	279	3.10(.65)	3.77(.60)	3.68(.53)	3.48(.56)	3.77(.78)	3.13(.52)	3.16(.79)
	13년이상	323	3.07(.63)	3.73(.62)	3.64(.53)	3.49(.57)	3.79(.80)	3.10(.50)	3.16(.74)
	합계	1015	3.11(.65)	3.76(.61)	3.68(.53)	3.52(.57)	3.82(.78)	3.14(.54)	3.17(.79)
F		1.70	.50	1.70	1.99	1.73	2.63	.24	
주택유형	독립주택	412	3.06(.64)	3.75(.62)	3.63(.55)	3.51(.56)	3.79(.79)	3.11(.51)	3.18(.81)
	집합주택	603	3.15(.66)	3.77(.60)	3.72(.51)	3.52(.58)	3.84(.77)	3.16(.56)	3.17(.77)
	합계	1015	3.11(.65)	3.76(.61)	3.68(.53)	3.52(.57)	3.82(.78)	3.14(.54)	3.18(.79)
	t		2.05*	.64	2.67**	0.77	.99	1.48	.02
소유형태	자가주택	806	3.13(.64)	3.77(.60)	3.69(.53)	3.49(.57)	3.80(.78)	3.14(.53)	3.18(.80)
	임대주택	209	3.07(.68)	3.71(.64)	3.64(.54)	3.63(.56)	3.88(.76)	3.14(.58)	3.16(.73)
	합계	1015	3.10(.66)	3.74(.62)	3.67(.54)	3.56(.57)	3.84(.77)	3.14(.56)	3.17(.77)
	t		1.19	1.27	1.25	3.15**	1.21	.00	.33
방의 기거상황	혼자쓴다	727	3.14(.66)	3.77(.61)	3.68(.54)	3.50(.59)	3.81(.78)	3.15(.56)	3.21(.78)
	둘 이상 함께 쓴다	288	3.05(.62)	3.73(.62)	3.69(.50)	3.54(.53)	3.83(.76)	3.12(.50)	3.09(.80)
	합계	1015	3.10(.64)	3.75(.62)	3.69(.52)	3.52(.56)	3.82(.77)	3.14(.53)	3.15(.79)
	t		1.92	1.08	.38	.90	.38	.82	2.26*
방의 수	3개이하	755	3.13(.65)	3.77(.59)	3.69(.52)	3.52(.57)	3.82(.78)	3.15(.54)	3.17(.76)
	4개이상	260	3.07(.65)	3.74(.66)	3.65(.56)	3.51(.59)	3.82(.78)	3.12(.55)	3.19(.85)
	합계	1015	3.10(.65)	3.76(.63)	3.67(.54)	3.52(.58)	3.82(.78)	3.14(.55)	3.18(.81)
	t		1.27	.47	1.19	.11	.01	.89	.34
화장실수	1개	566	3.08(.66)	3.75(.62)	3.66(.54)	3.54(.55)	3.80(.77)	3.12(.53)	3.12(.76)
	2개이상	449	3.16(.64)	3.78(.60)	3.71(.52)	3.48(.59)	3.83(.79)	3.17(.56)	3.24(.81)
	합계	1015	3.12(.65)	3.77(.61)	3.69(.53)	3.51(.57)	3.82(.78)	3.15(.55)	3.18(.79)
	t		1.83	.84	1.68	1.71	.62	1.59	2.51*

\*p<.05 \*\*p<.01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여 과시·유행추구형과 자기개발중심형에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독립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 주변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거나 과시나 유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편의추구형 생활양식을 높게 나타내고 있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세라도 편한 집에서 살기 원하며, 생활비를 절약해서라도 문화와 여가활동

을 즐기려고 하는 감각적이고 편의 지향적인 생활양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의 기거상황에 따라서는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취미 중심형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였다( $p<.05$ ).

가정의 방의 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화장실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운동, 취미 중심형 생활양식을 높게 평가하여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주거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주거가치관과 같이 고등학생의 생활양식도 주거특성보다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상관관계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주거가치관 중 입지적 측면은 생활양식의 모든 유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p<.01$ ). 심리적 측면은 생활양식의 편의추구형과 운동·취미형을 제외한 가족중심형, 자기개발중심형, 실리형은  $p<.01$  수준에서, PC와 함께 형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주거가치관 중 주택적 측면은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 중심형, 편의추구형, 실리형, 운동·취미형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p<.01$ ). 생활의식적 측면은 가족중심형, 자기개발 중심형, 편의추구

형, 운동·취미 중심형은  $p<.01$  수준에서, 과시·유행추구형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투자적 측면은 생활양식 중 PC와 함께 형을 제외한 과시·유행추구형, 자기개발 중심형, 편의추구형, 실리형은  $p<.01$  수준에서 가족중심형과 운동·취미 중심형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새로운 가치에 따른 주생활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에 의해 2002년 1월 14일부터 1월 25일에 걸쳐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지역의 남·녀 고등학교 학생 총1200명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불성실한 질문지 90부를 제외하고 10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 Schéffe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의 차이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형태를 제외하

<표 7>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과의 상관관계

구 분	생활양식							
	과시·유행 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 중심형	편의 추구형	PC와 함께형	실리형	운동·취미 중심형	
주 거 가 치 관	입지적 측면	.14**	.24**	.20**	.18**	.06*	.12**	.10**
	심리적 측면	.23**	.11**	.09**	.05	.07*	.13**	.02
	주택적 측면	.10**	.20**	.18**	.08**	.04	.09**	.10**
	생활의식적 측면	.06*	.23**	.14**	.12**	.04	.00	.12**
	투자적 측면	.10**	.08*	.08**	.17**	.05	.09**	.07*

\* $p<.05$  \*\* $p<.01$

고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주거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생활양식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족 수, 가족형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주거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의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주거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은 유의적인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고등학생의 주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거환경적 요인보다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적 배경이 주거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정환경 등 일반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주거가치관과 생활양식의 형성을 위한 주생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과 급격한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투고일 : 2002년 10월 31일

### 참 고 문 헌

고경필·윤재웅(1994). 주거가치와 주생활 양식에 따른 주택구매 행동분석. **한국주거학회지**, 5(2), 65~75.

김동기(1993). **현대마케팅원론**. 서울:박영사.

김미희·문희정(1998).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7), 11~20.

김미희·이유미(1998).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 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2), 89~95.

김숙향·양남희(1993). 도시주부의 Life Style에 따른 승용차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3~29.

김은경(1995). 신세대의 구매형태분석을 통한 신규브

랜드 설정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김희정(1990). 청소년 집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영순·신인호·한정원·황용진(1994).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1), 17~27.

박윤성(1991). **주거론**. 서울: 문운당.

신혜정(1997). 대학생의 주거가치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미영·고경필(1996).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2), 341~353.

윤재웅·신혜정(1997). 대구지역 거주 대학생의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1~139.

이은경·박은순(1998). 신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신세대의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2), 49~61.

이은희(1986). 라이프 스타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차옥(1983). 우리나라 도시주거 가정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서울시내 거주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윤정애(1993). 청소년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정근원(1993).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시사저널.

조명은·윤복자(2000). 신세대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1), 79~87.

조은정(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 가치와 주거 선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현정(1994). 주요국의 다양화에 따른 실내환경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주영순(1996). 청소년의 주거가치 유형과 주거 만족도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영애(1986). 도시 주부의 주거에 관한 가치관 연구 -서울시내 아파트 주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85~97.
- 허형숙·조성희(1997). 집합주택 계획에 따른 주생활 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2). 35~46.
- 홍성희(1984). 주거 가치관에 따른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Meeks, C. B.(1980). *Housing*. Prentice-Hall.
- Beyer, G. H.(1955). *Housing and Personal Values*. Cornell University.
- Culter, V. F.(1947). *Personal and Family Values in the Choice of a Hom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840.
- Duncan, H. D.(1969). *Symbols and Soci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ogy, F. D.(1974). Housing Decisions in Selecting a Residence in a Planned Townhouse Develop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 Meeks, C. B. & Ruth E. D.(1972). Values and Planning: In the Selection of a Family Living Environ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4(1).
- Smith, R. H. (1963). *Housing Choice and Selections as Evidenced by Residential Mobility*. University Park.